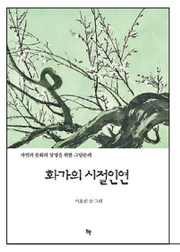
길 위에서 만난 인연의 꽃



화가의 시절인연
이호신 글 · 그림
뜨란
2만5000원

자연에서 길어 올린 생명의 흔적
관념 넘어 삶으로 그린 '생활산수'
박물관 사생·한글 뜻그림 확장



영축산 통도사의 밤, 170x271cm, 한지에 수묵, 2012. 사진 제공=뜨란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붓 한 자루를 들고 길 위에 선 지 어느덧 칠십 년. 이호신 화백의 신작 화문집 〈화가의 시절인연〉은 자연과 인간, 문화와 시간이 어떻게 인연으로 얽히며 삶을 이루는지를 묻는 깊은 수행의 기록이다. 수묵이라는 전통적 매체 위에 오늘의 풍경과 삶의 결을 담아 온 '길 위의 화가' 이호신의 여정은, 이 책에서 하나의 인문적 서사로 집약된다.

이호신 화백은 관념 속 산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그는 언제나 현장에 발을 딛고, 바람이 지나간 자리와 사람의 숨결이 남은 풍경을 그려 왔다. 최열 미술평론가가 "풀 한 포기도 현장에 서지 않고는 그리지 않는 실경화가"라고 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의 그림에는 한 번의 일필로 그어낸 선 안에 자연의 생동과 야생의 기운이 살아 숨 쉰다. 그것은 자연을 대상화한 재현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호흡하며 길어 올린 생명의 흔적이다.

1부 '산다는 건 꽃소식을 듣는 일'은 화백의 이러한 태도가 가장 따뜻하게 드러나는 장이다. 지리산 산청 남사예담촌으로 귀촌한 이후, 그의 시선은 더욱 낮고 깊어졌다. 집 뒤 대숲을 스치는 바람, 텃밭을 일구며 만지는 흙의 감촉, 손자의 탄생을 축복하며 바라본 찔레꽃의 순결함까지, 일상의 미세한 떨림들이 글과 그림으로 고스란히 옮겨진다. 남사마을 고매의 묵직한 세월과 800년 은행나무의 장엄함, 이름 없이 피었다 지는 야생화에 이르기까지, 화백은 모든 존재를 우연이 아닌 '시절인연'으로 받아들인다. 이는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곧 수행임을 일깨우는 대목이다.

2부 '아름다운 시절인연'에서 화백의 붓은 역사와 문화의 현장으로 향한다. 전국 83곳의 명산대찰을 그린 〈가람진경〉 작업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서원을 답사하며 담아낸 화폭은 사찰과 서원이 지닌 정신을 오늘의 풍경 속에서 되살린다. 자연과 삶, 배움과 수행이 어우러진 공간으로서의 서원은 이호신의 '생활산수' 미학과 만나 새로운 현재형 산수로 재탄생한다.

마을을 그리는 작업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양평 명달리에서 남해 다랭이논까지, 화백은 마을에 머물며 사람들의 얼굴과 풍속, 나무 한 그루와 풀 한 포기를 화첩에 담았다. 이는 관찰자의 시선을 넘어, 삶의 속살에 다가가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결과다. 사찰이 정신문화의 보고라면, 마을은 삶의 역사가 흐르는 혈맥이라는 그의 인식은 불교적 연기 사상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

불사 장엄에 대한 시도는 더욱 인상적이다. 고양 금륜사의 '천불수어설법도'와 남원 실상사의 '지리산 생명평화의 춤'은 전통 불화의 형식을 넘어, 현대적 생활산수로 구현된 새로운 불교미술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수화하는 부처, 다양한 인종의 얼굴을 지닌 천불은 종교의 경계를 넘어 생명 평화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전한다.

또 다른 축은 박물관 사생과 '한글 뜻그림'이다. 이름 모를 장인의 손길이 깃든 유물을 화첩에 옮기며, 그는 무명의 예술혼과 조우한다. 박물관을 '역사와 미래가 만나는 대화의 장'으로 여긴 그의 사유는 한글 뜻그림으로 확장돼, 글자와 그림의 경계를 허문 독창적 조형 세계를 구축한다. 또한 탄자니아, 인도, 몽골 등 제3세계의 풍경을 한지와 수묵으로 담아낸 작업은 한국화의 경계 없는 확장 가능성을 증명한다.

춘풍추수, 봄바람 같은 마음과 가을물 같은 정신으로 길을 걸어온 이호신 화백의 고백은, 바쁜 일상에서 잊고 지낸 삶의 결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 모든 인연은 저마다의 꽃을 피운다. 이 다정한 메시지가 오래도록 잔잔한 울림으로 남는다.

팔순 재가 불자가 정리한 불교 교리



니르바나
박민주 지음
도서출판 해조음
2만7000원

삶의 국면 지나며 얻은 공부 결실
종교 생성부터 불교 핵심 교리까지

여든을 훌쩍 넘긴 재가 불자가 평생 품어 온 불교 공부의 결실을 한 권의 책으로 펴냈다.

저자는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은행원과 개인 사업체 대표로 회생활을 이어 갔다. 그러나 어음 사기에 휘말리며 인생의 큰 좌절을 겪었고, 이후 경기도 일대에서 농장과 농원을 운영하며 삶의 국면을 지나왔다. 그 과정에서도 불교는 삶을 떠받치는 중심축이었다.

저자는 "전생의 조그마한 공덕으로 부처님 법을 알게 된 자비스러운 가피가 정녕 고마울 따름"이라며 "내세에는 스님으로 태어난 불법 수호와 전파에 힘쓰고 용맹 정진해 참된 깨달음을 얻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니르바나〉는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종교와 불교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종교가 생성된 배경을 짚고, 불교가 등장한 역사적 맥락과 함께 핵심 사상인 공(空)의 의미를 설명한다.

2부 '현실세계의 체계'에서는 오온과 12연기를 중심으로 존재와 세계를 바라보는 불교적 관점을 소개한다. 인간을 구성하는 다섯 요소와 괴로움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현실 세계가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설파한다. 3부 '이상세계의 실체'에서는 제행무상과 제법무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육바라밀과 팔정도의 실천적 의미를 짚는다.

4부 '인간 생성의 주체와 그 종류'는 업과 연기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저자는 "연기론은 불교의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며,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우치신 내용도 연기 법칙의 진리"라고 강조하며 업감연기론과 아뢰연기론, 진여연기론, 법계연기론의 차이를 비교해 설명한다.

5부 '생멸 무쌍한 우주만유의 실상은 무엇인가'에서는 우주와 만유의 실체를 고찰하는 실상론을 다룬다.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세계의 이면을 성찰하며, 니르바나가 괴로움에서 벗어난 자유의 경지임을 환기한다.

여수령 기자

인간 붓다의 '불안'



붓다, 불안을 말하다
이충현 지음
그린비
1만8800원



이충현 동국대 동서사상연구소 학술연구교수.

깨달음을 얻은 자, 붓다. 하지만 고타마 싯다르타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내적 갈등과 불안을 겪었다. 생로병사에 대한 불안, 수행자로서의 고행과 좌절, 깨달음을 향한 집요한 탐색…. 불교심리학자이자 상담가인 저자는 〈붓다, 불안을 말하다〉에서 '인간 붓다'를 '불안'이라는 틀로 읽어낸다.

시작은 하나의 질문이었다. '괴로움'을 주제로 한 불교학 세미나에서 한 스님이 "부처님이 어떤 괴로움도 느끼지 않았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던진 것.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한 붓다도 한 인간이었을 텐데, 어떤 괴로움도 느끼지 않는 일이 가능한 것일까? 그렇다면 나도 지금 겪고 있는 심적 괴로움을 제대로 떨쳐 버릴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책에서는 싯다르타의 출생에서부터 왕자로서의 성장 과정, 출가와 수행의 시간, 깨달음 이후의 삶에 이르기까지 일생의 모든 국면에서 붓다가 겪었을 '불안의 여정'을 추적한다. 그리고 그 불안이 어떻게 그의 사유와 선택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핀다. 삶의 단계마다 다른 불안을 세밀히 구분하고 관찰함으로써, 불안이 제거나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사유를 촉발하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임을 밝힌다.

'불안'이란 렌즈로 본 붓다의 생애
제거 대상 아닌 사유 촉발 매개

이러한 시도는 붓다의 핵심 사상에 대한 재해석으로 이어진다. 중도는 타협이나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극단을 끝까지 밀어붙이며 얻어 낸 균형의 지혜였다. 연기와 사무량심 또한 불안을 제거하는 이론이 아니라, 나와 타인이 연결되어 있음을 체험함으로써 불안에 압도되지 않는 삶의 기술이다. 붓다는 불안을 없애려 하지 않았고, 불안에 '두 번째 화살'을 허락하지 않는 법을 몸소 보여 주었다.

"불안한 우리는 이제 이 시대를 치유하기 위해 붓다가 말한 불안의 해결책을 참고해야 한다. 다행히 붓다는 2600년 전에 이미 불안의 정체가 무엇이고, 그것과 지혜롭게 동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친절하고 꼼꼼하게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이제 여러 과학적 검증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저자는 붓다의 불안을 탐구하고 묘사하려는 시도가 결코 붓다를 욕되게 하거나 깎아내리는 작업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한 성자 붓다의 가르침이 현대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도록 해, 불안한 그들의 삶에 더 절절한 도움이 되어 주리라 믿는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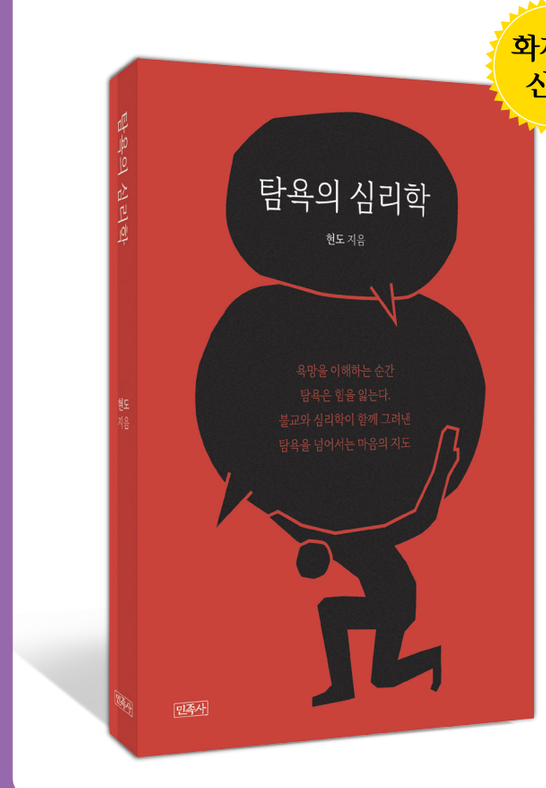
정현채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는 "싯다르타는 출생과 주변 환경에서 오는 불안과 생로병사로 조건 지어진 존재로서의 불안을 그 누구보다 예민하게 느꼈다"며 "그가 우리와 다른 점은, 불안으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직면해 불안에 지배받지 않을 수 있는 깨달음에 이르렀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알려 준다는 점"이라고 말한다.

이충현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불교철학을 현실 문제에 적용해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마음연구소 우산'을 운영하며 상담과 대중 강의를 병행하고 있다. 2021년 '제2회 불교상담학술상'을 수상했으며 저서로 〈카르마 상담소〉가 있다.

여수령 기자

탐욕은 왜 멈추지 않는가

화제의 신간



돈·욕망·불안이 멈추지 않는 마음의 구조
불교와 심리학으로 읽는 탐욕의 메커니즘

더 가지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 그러나 불안은 멈추지 않았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탐욕의 작동 방식이다

덜 가지는 법이 아니라,
덜 휘둘리는 법을 알려주는 책



탐욕의 심리학
현도 스님 | 392쪽 | 28,500원

직지사 녹원 큰스님을 계사로 출가하여 동국대학교 WISE 캠퍼스에서 응용불교학을 전공하여 석사과정을, 동대학원에서 응용불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불교상담학회에서 개발한 Mind Detox Program(MDP: 탐진치 해독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인증 교육이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불교상담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며 동대학교 불교학과 및 명상심리학과에서 강사로 후학을 기르고 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